

◆ 05-9평 25~29번

[25~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된 것 같아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우린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느이 고향이 어딘데?”

“물라서 묻니? 개성쪽, 개풍군이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

“그래도라니? 변명치곤 너무 구차스럽다 애. 이북에 두고 온 논밭 저당잡고 돈도 썩 달랠라.”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목계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님이 선영 길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탄 데다 묘지를 사 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세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묘지란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판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에그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호숙 에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걸으며 불렀다.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握力)이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 했다. 그러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 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잊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쫓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새 고개 너머 별판의 밭머리에 ㉤가매장했다.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 날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토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보고 과부가 된 것도 역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 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련만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 종당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적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뽄뽄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恨)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사는 악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A]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分斷)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㉔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제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삼십 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었다.

- 박완서, 엄마의 말뚝 2 -

2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인물 사이의 감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빠른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감각적인 수사를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서술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을 세시하면서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26. ㉔~㉕ 중에서 ㉔의 심층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 ② ㉕ ③ ㉖ ④ ㉗ ⑤ 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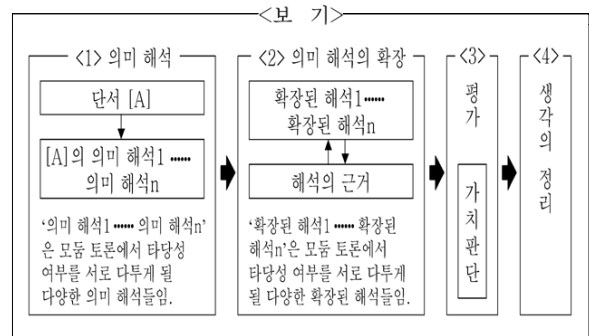
27. ㉔과 같이 말한 근거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체험의 동질성 ② 성격의 동질성 ③ 신념의 동질성
- ④ 심리의 동질성 ⑤ 생사관(生死觀)의 동질성

28. ㉔과 ㉕을 관련지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묘를 쓰고 싶어 한다.
- ② ‘나’는 어머니의 당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
- ③ ‘어머니’는 고향을 떠난 일을 후회하고 있다.
- ④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떠나보낸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한다.
- ⑤ ‘어머니’와 ‘나’는 내심 오빠를 화장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

29. 위 글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모둠 토론을 준비하려고 한다. [A]를 단서로 하여 정리한 생각 중에서 <보기>에 주어진 경로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은? [3점]



① [A]를 보면 ‘어머니’는 분단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어머니’는 분단 때문에 상처 받은 우리 민족 모두를 뜻하지. 한 역사학자는 분단을 우리 민족이 여전히 겪고 있는 ‘충성 없는 전쟁’이라고 말했어. 위 글은 ‘어머니’를 통해 아직도 그 전쟁터에서 살아가야 하는 민족의 한을 전형적으로 형상화한 대목이야.

② [A]를 보면 ‘어머니’는 분단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어머니’는 분단을 개인과 가족의 비극으로 축소시키는 소시민에 속하지. 소시민의 현실 인식이 개인주의와 가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은 이미 주장된 바 있어. 위 글은 소시민이 그 점을 극복할 때에만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야.

③ [A]를 보면 ‘어머니’는 분단이라는 거대한 적과 대결하는 개인임을 알 수 있어. ‘어머니’라는 개인과 대결하는 분단이 거대한 적이라는 뜻이지. 그러나 분단이 아무리 거대한 적일지라도 개인은 그것과 대결하게 되지. 위 글은 거대한 적인 분단 상황과 맞서 싸우는 것이 개인이 가지게 될 태도라는 사실을 형상화한 대목이야.

④ [A]를 보면 ‘어머니’는 죽음으로써 분단과 대결하고 있어. 분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어서도 묘지에 묻히기를 거부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지. 그러나 죽은 자가 결코 현실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경험적 진실이지. 위 글은 분단의 극복을 관념적인 문제로 축소시킨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야.

⑤ [A]를 보면 ‘어머니’는 분단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인물로 나오지. 비극적 역사는 반드시 그 역사 속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이지. 역사와 개인이 상호 작용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야. 위 글은 그 사실을 비극적인 가족사를 통해 제시하면서 있어야 할 올바른 우리 역사의 모습을 암시한 대목인 셈이지.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어머니가 싫고 미웠다. 우선 어머니를 이루고 있는 그 부연 회색이 미웠다. 백발에 등성등성 검은 머리가 궁상맞게 섞여서 머리로 회색으로 보였고 입은 웃도 늘 찌들은 행주처럼 지쳐 빠진 회색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것은 그 회색빛 고집이었다.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고 있노라는 생활 태도에서 추호도 물러서려 들지 않는 그 무섭도록 단단한 고집. 나의 내부에서 꿈틀대는, 사는 것을 재미나 하고픈, 다채로운 욕망들은 이 완강한 고집 앞에 지쳐 가고 있었다.

회색빛 벽지에 몸을 기대듯이 앉은 어머니의 부엌고도 고집스러운 모습. 의치를 빼놓은 입의 보기 싫은 다물새, 이런 것들을 피하듯이 나는 건넌방으로 건너와 불을 켰다.

혁이 오빠와 옥이 오빠가 같이 쓰던 장방형의 드넓은 방은 전압이 낮은 30축의 전등으로 고루 비추기에는 너무 넓었다. 네 귀퉁이가 어두운 채 남겨진 불그죽죽한 밤음 속에서 나는 세차게 몸서리를 쳤다. 나는 나를 둘러싼 이 우울한 외로움에 좀처럼 익숙해질 수 없었다.

“그때는 좋았었지…….”

늪은이처럼 푸듯이 넘치리며 벽에 걸린 기타의 젤 굵은 줄을 엄지와 집게로 잡았다 놓으니 음산한 저음이 둔중하게 울렸다. 옥이 오빠 손에서 갖가지 재미나는 가락을 내던 것—기타 소리뿐이었을까? 그때의 생활은 온통 소란스럽고도 신나는 음향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다. 음향뿐이 아니다. 여러 가지 색채, 위태롭도록 다채롭고 현란한 색채가 있었던 것 같다.

벽면을 가득히 메운 잡다한 것들—압정으로 가로세로 혹은 비스듬히 눌러놓은 각종 기념사진, 배우들의 브로마이드, 서툰 데생, 제법 그럴듯한 수채화, 그림엽서, 괴물처럼 늘어진 야구 글러브, 때론 유도복—어떤 용한 무당도 아마 이 방주인들의 취미나 생활을 짐작 수는 없으리라.

그들은 늘 몹시 바빴고, 난 또 얼마나 바빴었을까. 세상에는 재미난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좋아할 것이 연달아 널려 있어서 혁이 오빠도 옥이 오빠도 눈이 돌 지경이었고, 난 또 그것을 덩달아 하느라 신이 났었다.

우리 집에 무상출입하는 오빠들의 유쾌한 친구들을 좋아했고, 그들이 즐기는 스포츠와 유행 음악에 덩달아 열중했고, 그들이 반한 영화배우에 나도 반했고, 그리고 부드럽고 말랑한 손과 구수한 음식 솜씨를 가진 우리들의 어머니를 또한 얼마나 사랑했던가.

나는 벽면의 난잡한 진열품들을 살살이 훑어보고 나서 다시 한 번 기타 줄을 튕기고 자리에 엎드렸다.

가슴 밑 명치께가 요사이 늘 그렇듯이 체중 비슷한 거북함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엎드린 채 그 밑에 베개를 피고 지그시 눌렀다. 난 알고 있었다. 그 속에서 사랑하고픈 마음이 얼마나 세차게 꿈틀대고 있는지를.

그러나 도대체 누구를 덩달아, 누구를, 무엇을 좋아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할 만한 가치, 열중할 만한 대상을 찾아내는 데 실로 혁이나 옥이 오빠만 한 날랜 재주꾼이 또 있을까?

보잘것없이 보이는 친구도 “그치 그래 뻔도 이것 하난 국보적이지” 하며 공차는 품을 지어 보인다는가 “그 새긴 꼴

은 꺼병해도 속이야 꼭 찼거든” 어찌구 단언을 할라치면 난 금세 그들이 그렇게 보였고 그들을 좋아할 수 있었다. 난 오빠들을 통해서만 모든 사물을 받아들였고 이해하려 들었었다.

그들이 없는 지금 우리들이 함께 그렇게도 사랑하던 어머니까지도 어찌면 그렇게 보기 싫게 퇴색해버리는 것일까?

(나) 나는 어머니의 까실한 손이 톱 알맞게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정성껏 애무하며,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나의 미래에의 꿈을 마음껏 누렸다.

“가엸은 나의 엄마. 엄마가 그런 걸 보셨다니. 우리 엄마가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을 줄이야. 그렇지만 엄마, 저를 위해서라도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엄마의 딸이 있잖아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어요. 오빠들 뒤편까지 효도를 하고 말고요. 가엸은 나의 엄마,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내 손 사이에 받들고 기도 드리듯이 경건하게 어머니의 쾌유를 빌었다.

어머니가 별안간 눈을 크게 떴다. 처음엔 눈이 부신 듯이 가늘게 그러다가 점점 크게 열리며 내 눈과 마주쳤다.

“엄마, 나예요, 경아.”

나는 벽찬 탄성을 질렀다. 참으로 오랜만에 어머니의 눈에 부연 안개가 걷히고 어떤 감정이 담겼다. 나는 내 시선을 조금이라도 어머니로부터 비껴면 모처럼 돌아온 어머니의 영혼이 다시 훌쩍 떠나 버릴 것 같아 열심히 어머니의 눈에 눈을 맞추었다.

그러나 빛나던 어머니의 눈이 점점 귀찮다는 듯이 게슴츠레 감기며 나에게 잡혔던 손을 슬그머니 빼내고 부시시 돌아눕더니 휴 하고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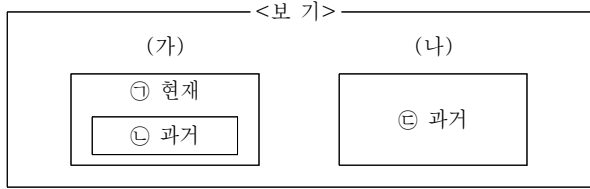
“어찌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들은 몽땅 잡아가지고 계집애만 남겨 놓으셨노.”

나는 비실비실 일어섰다. 간신히 안방 미닫이를 열고 대청으로 나왔다. 시야가 부엌에 흐려 보였다. 나는 그 부연 것을 헤치려고 자꾸만 눈을 꿈벅이며 북창문을 열었다. 우수수하고 스산한 바람이 치마폭으로 펄럭 안겨왔다. 나는 맥없이 몸을 떨었다. 바람이 다시 뒷마당을 [A] 골고루 휩쓸었다. 쇠아 하고 정원수들이 상쾌하고도 툭툭추운 소리를 냈다. 나는 비로소 자지러지게 노오란 은행나무를 보았다. 화려한 광경이었다.

그는 얼마나 풍부한 의상을 걸쳤기에 저렇게 노란 빛들을 마구 쏟아놓고도 저렇게 변함없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걸까? 그것은 꽃보다도 훨씬 찬란했다.

— 박완서, 「나무」 —

34. 윗글을 <보기>와 같은 구조로 이해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간상으로 ㉢은 ㉠과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 ② ㉠에 나타나는 '나'의 외로움은 ㉡과 관련이 있다.
- ③ ㉠에 드러나는 '나'의 갈등의 원인을 ㉢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과 ㉡의 분위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과 ㉢은 서로 다른 인물의 시각으로 서술되고 있다.

35. [A]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분위기 반전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로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해 작품의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사건 진행의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면과 대비되는 배경을 통해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소설에서 색채 이미지는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나무」에서 '회색'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는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나'에게 '회색'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와/과 동일시되고 있다.

- ① 퇴색해 버린 '나'의 미래
- ② 단란했던 시절에 대한 추억
- ③ 사랑에 대한 욕구를 잃어버린 자신
- ④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희생된 오빠들
- ⑤ 삶의 의욕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어머니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숨을 죽이고 지그시 아픔을 견디며, 또 하나의 아픈 날을 회상한다. 꼭 이만큼이나 아팠던 날을.

그것은 아마 나의 고가(古家)가 헐리던 날이었을 게다.

남편은 결혼식을 치르자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했다.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는 **음침한 고가**는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으니, 깨끗이 헐어 내고 대지의 반쯤을 처분해서 쓸모 있는 **견고한 양옥**을 짓자는 것이었다.

너무도 당연한 소리였다. 반대할 이유라곤 없었다.

고가의 철거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나는 그 해체를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지켰다.

우아한 추녀와 드높은 용마루는 현 기왓장으로 해체되고, 웅장한 대들보와 길들은 기둥목, 아른거리던 마둑마루는 허술한 장작더미처럼 나자빠졌다.

술한 애환을 가려 주던 <亞> 자 창들이 문짝 장사의 손구루마에 난폭하게 실렸다.

① 남편은 이런 장사꾼들과 몇 푼의 돈 때문에 큰소리로 삿대질까지 해 가며 영악하게 흥정을 했다.

남편 하나는 참 잘 만났느니라고 사돈댁-지금의 동서-은 연신 빠드러진 이를 드러내고 내 등을 쳤다.

이렇게 해서 나의 고가는 완전히 해체되어 몇 푼의 돈으로 바뀌었나 보다.

아버지와 오빠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집, 어머니가 임종의 날까지 그렇게도 집착하던 고가. 그것을 그들이, 생면부지의 낯선 사나이가 산산이 해체해 놓고 만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고가의 해체는 행랑채에 구멍이 뚫린 날부터 이미 비롯된 것이었고 한번 시작된 해체는 누구에 의해서고 끝막음을 보아야 할 것 아닌가.

다시는, 다시는 아침 햇살 속에 기왓골에 서리를 이고 서 있는 **숙연한 고가**를 볼 수 없다니.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을 의연히 견디었다. 실상 나는 고가의 해체에 곁들여 나 자신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이 쓸모없이 불편한 고가를 해체시켜 우리의 새 생활을 담을 새 집을 설계하듯이, ②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

쓸모 있고 견고한, 그러나 속되고 네모난 집이 남편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엌과, 잔디와 조그만 분수까지 있는 정원이 있는 아담하고 밝은 집. 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

③ 다만 나는 후원의 은행나무들만은 그대로 두기를 완강히 고집했다. 넓지 않은 정원에 안 어울리는 거목들이 때로는 서늘한 그늘을 주었지만 때로는 새 집을 너무도 침침하게 뒤덮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것들의 빛, 그것들의 속삭임, 그것들의 아우성을 가끔가끔 필요로 했다.

㉔ 그러고 보니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아 있는지도 몰랐다.

“옥회도 씨 유작전이 있군.”

남편도 지금 그 기사를 읽고 있는 모양이다.

“죽은 후에 유작전이나 열어 주면 될 해. 살아서는 개인전 한 번 못 가져 본 분을.”

“...”

“홍, 그분 그림이 외국 사람들 사이에 꽤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모를 일이야.”

‘홍, 잡종의 상관을 혈값으로 그려 준 대가를 제법 받는 셈인가.’

“죽은 후에 치켜세우는 것처럼 싱거운 건 없더라. 아마 어떤

㉕ 비평가의 농간이겠지...”

‘홍, 당신이 생각해 낼 만한 천박한 추측이군요.’

“에이 모르겠다. 예술이니 나발이니. 살아서 잘 먹고 편히 사는 게 제일이지.”

‘암, 몰라야죠.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그분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걸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남편은 신문을 떨구고 기지개를 늘여지게 뒀다.

㉖ 나는, 젖힌 그의 얼굴에서 동굴처럼 뚫린 콧구멍과 그 속을 무성하게 채운 코털을 보며 잠깐 모멸과 혐오를 느꼈다.

(중략)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쏘았던가 고개를 젖힌 채 눈이 함빡 하늘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뿐, 이미 그의 눈엔 10년 전의 앓던 갈망은 없다. 그뿐이라.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소망 외에는 한 번도 야망이나 고뇌가 깃들여 보지 않은 눈. 부스스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붉은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가 나는 또다시 낯설다.

저만치서 고등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친다. 공이 나비처럼 경쾌하게 날아와 라켓에 부딪치는 소리가 마치 젊은 연인들의 찰나적인 키스의 파열음처럼 감각적으로 들린다.

㉗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의 주름 진 곳에 그런 키스를 퍼부었다.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 박완서, 『나무(裸木)』 -

31. ㉑~㉗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의 ‘남편’의 행동은 ㉔에서 ‘나’가 지키고자 했던 대상을 보존하기 위한 ‘남편’의 배려심이 반영된 것이다.
- ② ㉑에는 ‘남편’의 행동 묘사를 통해 ‘남편’의 성격이 드러나 있고, ㉔에는 ‘남편’의 외양 묘사를 통해 ‘나’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③ ㉔에서 ‘나’는 ‘남편’의 삶에 동화되고자 하지만, ㉕에서 여전히 ‘남편’에게 동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 ④ ㉔에는 ‘남편’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나 있고, ㉕에는 ‘남편’을 낯설어하는 ‘나’의 감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돌발적 행위가 드러나 있다.
- ⑤ ㉖에서 드러나는 ‘은행나무들’에 대한 ‘나’의 집착은 ㉗에서 나타나는 ‘나’의 잠재의식과 연결된다.

32. [코가]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코가]의 철거 결정에는 ‘남편’의 실용적인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다.
- ② [코가]의 철거를 주장한 ‘남편’은 ‘건고한 양옥’의 설계에서도 자신의 뜻을 반영하였다.
- ③ [코가]의 철거는 ‘나’와의 친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남편’의 의지가 좌절된 사건을 의미한다.
- ④ [코가]는 과거의 ‘나’가 투영된 대상으로 ‘나’의 의식 속에 환기되어 내면의 갈등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코가]를 ‘남편’은 ‘음침한 고가’로, ‘나’는 ‘숙연한 고가’로 표현하여 인물에 따른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㉘에 대한 ‘남편’의 속말이라고 가정할 때, 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생전에는 주목하지 않던 옥회도를 사후에 높이 평가하는 것에는 원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㉘(이)라는 말이 생각나는군.

- ① 모래 위에 쌓은 성
- ② 고양이 쥐 사정 보듯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④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완부분 줄거리]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남편이 의도하지 않게 사기 사건에 걸려 K지청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나’는 남편의 사건을 담당하는 K지청 수사과 권 주임을 만난다.

“사모님 같은 분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면회를 하신대서야 말이 됩니까? 오죽한 사람들이 이 짓을 합니까? 돈뿐이나 있는 사람은 다 특별 면회라는 걸 이용하니 사모님도 제가 그걸 알선해드리죠. 이거면 되니까요, 이거요.”

그는 다섯 손가락을 째 펴 보였다. 그후 나는 구치소 정문 앞 주차장에 준비한 승용차가 이런 특별 면회자 중의 또 특수층의 차라는 것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오 분의 만남을 위한 갖은 수모와 다섯 시간의 기다림조차도 공평한 게 아니라 각양각색으로 억울한 사람들만의 이 중의 억울함이었던 것이다.

특별 면회라는 것에 유혹을 안 느낀 건 아니지만 그동안 내가 친해진 사람들과의 공통의 억울함에서 나만 놓여나는 게 무슨 배신 같아 꺼림칙한 것 또한 어쩔 수 없었다.

한편 K지청 권 주임의 친절을 가장한 은밀한 공갈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은 남편이 K지청으로 검사 취조 받으러 왔는데 자기가 사식을 대접했노라는 핑계로 상당액의 금액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을 마련해갖고 그를 만난 날 그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다.

“아줌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지금 검사 손에 달렸을 때 손을 써야 한다니까. 기소돼서 관사한테로 넘어가봐. 그때야말로 큰돈 든다구, 큰돈.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구. 불기 소처분하는 걸로 내가 아주 청부 맡고 아줌마는 이것만 준비하라니까, 이것만. 날짜가 없어, 날짜가.”

그러면서 다섯 손가락을 두 번인가 세 번 폈다 접었다 하면서 안달을 했다.

내 소박한 법률상식으론 그가 영장을 신청한 검사한테 다시 불기소처분을 교제하겠다는 게 도대체 씨가 먹지 않아 상대를 안 하려 해도 그가 담당검사와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를 아주 냉대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나는 어리석었고 의지할 데 라곤 없었다. 그가 남편을 결코 이롭게 할 순 없어도 수틀리면 해 롭게 할 수 있으리라는 기분 나쁜 예감은 백주의 악몽이 되어 늘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드디어 나는 변호사와 의논해서 사건을 의뢰해볼까 해서 친구의 소개로 강 변호사를 만났다. 친구의 말대로 유능한 변호사인 듯 변호가에 으리으리한 사무실을 갖고 있었다. 나는 내가 의뢰하려는 사건이 그에겐 너무 작은 사건일 것 같아 미리 위축됐다.

강 변호사는 내가 설명하는 사건 내용을 시종 비웃는 듯한, 지루한 듯한 미소로써 들었다. 다 듣고 난 그는 사건에 대한 일언반구의 반문도 없이 엉뚱스럽게도 작가의 남편이 장사꾼이란 것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나타냈다. 아마 친구가 내가 작가라는 소리까지 해놓은 모양이다.

“거참 이상한데요. 암만해도 이상해요. 작가의 남편이 상인, 이래도 이상하고, 상인의 부인이 작가, 이래도 이상하고……”

사건을 검토할 척은 안 하고, 당사자들이 이십 년 넘어를 조금도 이상해하지 않으면서 산 것을 제가 뭐라고 혼자서 이상해하기에 여념이 없는가.

나는 남의 삶에 대한 그의 이런 속기(俗氣)스러운 호기심과 안이한 이해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친구의 소개도 있고 해서 그가 호기심을 제풀에 가라앉힐 때까지 참았다.

그는 저절로 직업적인 자신만만한 태도를 회복하더니 간단히 말했다.

“불기소로 해드리면 되죠?”

“네?”

“검사가 기소 안 하고 풀어주도록 해드리면 되냐구요?”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다 되는 방법이 있죠. K지청 쪽은 흔히 통하니까요.”

“그러세요?”

나는 어정쩡했다. 어쩔 그렇게 말하는 식이 권 주임하고 똑같을까 하고 정이 떨어졌다. 그는 불기소처분을 아주 청부 맡겠다며 삼십만 원을 요구했다.

친구에게 강 변호사가 이리저리하게 말하더라고 얘기했더니 친구는 뭘 듯이 좋아하면서 강 변호사가 그랬으면 그 일은 그렇게 될 걸로 믿어도 좋을 거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믿어지지 않았고 마음이 썩 내키지도 않았다.

(중략)

결국 남편을 위해 합법적으로 손을 쓰는 길은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강 변호사에게 삼십만 원을 주고 사건을 맡겼다.

그러나 남편은 기소됐다. 기소된 걸 나한테 재미난 듯이 알려준 권 주임이었고, 정작 강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그 사실을 알려주자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전화로 알아보더니,

“거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럼 그까짓 거 보석으로 꺼내드리지.”

또 한번 힘 안 들이고 큰소리를 했다. 그러나 나는 위임을 취소했다.

결국 남편은 재판받았다. 쌀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밥을 훔쳐 먹은 도둑놈, 주인의 옷가지를 훔쳐낸 식모, 사고 낸 운전사, 버스 칸에서 싸우다가 이를 부러뜨린 폭력범, 수금한 돈을 가로챈 점원 등, 삼십여 명의 조무래기 잡벌들과 함께 무더기로 재판을 받았다.

신의 능력으로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네” 하고 대답할밖에 없는, **사건의 표피를 건드리는데 불과한 판사의 심문**이 한 사람 앞에 두 번 내지 세 번씩이나 돌아갔을까. 그런데도 워낙 피의자가 많고 보니 서너 시간은 후딱 지나갔고 곧 검사의 구형이 있었다.

나는 변호사를 취소한 걸 은근히 위우고 있었는데 재판을 보면서 백전 잘한 일이다 싶었다. 왜냐하면 삼십여 명 중 단 한 사람도 변호사가 딸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남편에게만 변호사가 딸렸더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법정에서까지 그 교악한 억울함을 맛보았을 게 아닌가.

십오 일 후의 연도 공판에서 남편은 자유의 몸이 됐다.

그는 다시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게 됐고, 처음엔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니 차츰 시들해지면서 나는 다시 바가지를 긁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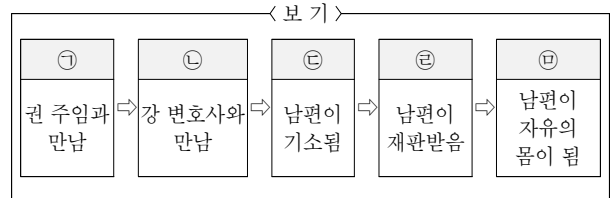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생활의 평온이 돌아오니 다시 그전처럼 자유의 문제를 생각하는 밤까지도 돌아왔다. 어느 날이고 자유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앞에 자유의 성찬(盛饌)이 차려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전 같으면 아마 가장 화려하고 볼품 있는 자유의 순서로 탐을 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는 후로는 하고많은 자유가 아무리 변쩍거려도 우선 간장 종지처럼 작고 소박한 자유, **억울하지 않을 자유**부터 골라잡고 볼 것 같다.

- 박완서, 「조그만 체험기」 -

40.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담담한 태도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여러 인물의 입장에서 중심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내면 서술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 ④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외양적 특징을 부각하여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41. <보기>는 윗글의 서사 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 ~ ㉥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남편의 안위에 대한 ‘나’의 불안 감은 증폭된다.
- ② ㉡을 주선한 친구의 긍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 변호사를 신뢰하지 못한다.
- ③ ㉢에서 ㉣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는 강 변호사의 제안을 거절한다.
- ④ ㉣에서 ‘나’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변호사 위임을 취소한 자신의 선택을 긍정한다.
- ⑤ ㉥ 이후 예전의 평온한 삶을 회복하지 못한 남편에 대해 ‘나’는 연민을 느낀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소설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빈부 격차로 인한 불평등, 물질주의적 세태, 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의 모습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는 소설에서 불합리한 현실과 양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소시민의 내적 갈등과 소박한 소망을 보여주면서, 사회 현실의 부조리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① ‘오래 기다리는 면회’와 ‘특별 면회’라는 말을 통해서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엿볼 수 있군.
- ② ‘권 주임’의 제안에 ‘유혹을 안 느낀 건 아니지만’이란 서술에서 현실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변호사와 의논해서 사건을 의뢰해볼까’하는 생각에서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태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사건의 표피를 건드리는데 불과한 판사의 심문’이라는 표현에서 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억울하지 않을 자유’는 불합리한 현실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소박한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24년 7월 고3 31~34번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완벽한 질서를 부르짖는 교장 선생님은 나무가 물들어 매 일매일 낙엽을 떨구기 시작하면 환경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해서 아이들을 나무에 올려 보내거나 장대를 휘둘러 낙엽을 한꺼번에 깨끗이 떨구게 하곤 한 번에 쓸어 내게 했다. 그래서 무릉국민학교 교정의 나무들은 가을도 깊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나뭇(裸木)이 된다.

작년에도 그랬었고, 재작년에도 그랬었다. 나는 변기에 앉아 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발가벗긴 나무들을 바라볼 적마다 정서의 불모지대를 보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었다. 그리고 완벽한 질서를 위해 행해지는 그런 유의 무리가 완전한 학습을 위해선 또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을까, 또 눈에 보이는 무리가 어떻게 추하거늘 눈에 안 보이는 무리는 얼마나 끔찍할까를 자못 심각하게 회의했었다. **그런 유의 회의에 사로잡히면** 내 아이들이야말로 낙엽을 한꺼번에 떨구는 부자연율 강요당하고 있는 어린 나뭇 같은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로서의 가책과 사랑으로 가슴이 저렸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불편은 변기에 앉았는 동안만 나의 것이었다.

아파트의 생활 양식이란 게 티끌만 한 불편도 허용 안 하는 것처럼, 내 생활의 안일은 내 마음의 불편을 더운물이 눈 녹이듯 흔적도 없게 했다.

변기에 앉아 있는 동안이라도 불편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나의 오랜 버릇 때문이었다. 양전한 소년이었을 적에도 뒷간에 앉았는 동안만은 엄청난 모반도 꿈꿀 수가 있었던 나의 오랜 버릇 때문이었다.

아내가 돌아왔다. 아이들이 엄마를 반겼다. 아내는 서양 여자처럼 아이들을 능숙하게 포옹하고 뺨에 뽀뽀를 했다.

“엄마야, 우리 반이 수혜 의연금 모금에서 일등 했어. 그래서 내일 신문사로 전달하러 가는 대표로 뽑혔다, 나.”

딸애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 잘됐다. 아이, 신동한 내 새끼.”

아내가 다시 딸애를 포옹하다 말고 밀치더니 옷장으로 달려갔다.

“가만있자, 뭘 입혀 보내지? 사진이 잘 받는 걸로 입혀야 텐데…….”

아내는 딸애의 ○○○장 속에 찻찻이 걸린 옷 중에서 이것저것 꺼내서 딸의 어깨에 걸쳐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던 뺨개치고, 다시 딴 것을 걸쳐 보는 일을 되풀이했다.

올여름 장마에 구시가에선 지독한 물난리를 겪었고 많은 수재민을 냈다. 각급 학교 및 사회단체에선 즉각 구호 금품을 걷기 시작했다.

무릉국민학교는 수재민뿐 아니라 모든 불우 이웃 돕기 운동에 열성적이었다. 그 결과 다른 학력 경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국민학교 중에서 단연 으뜸가는 성과를 거두어 신문에 자주 오르내렸다.

수재민은 여름마다 잘도 생겼고, 온정을 기다리는 불우 이웃은 겨울마다 잘도 생겼다. 무릉국민학교가 이름을 떨칠 기회도 그만큼 자주 생겼다.

일등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교장 선생님은 무릉국민학교가 일등 가는 **모금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교내에서 반끼리 경쟁을 붙이는 **표안을 강구해** 냈다.

모금 실적이 가장 우수한 반은 반에 걸어 놓을 수 있는 상장을 주어 칭찬하고, 그 반 반장 부반장은 학교를 대표해서 신문사에 성금을 전달하러 갈 수 있는 영광을 준다는 게 그거였다.

교장 선생님은 청소도 환경 미화도 실력 고사도 고운 말 쓰기도 착한 일 하기도 이런 식으로 경쟁을 붙이기를 좋아했다. 아이들의 조그만 가슴이 늘 경쟁의식으로 고무풍선처럼 충만해 있도록 하는 거야말로 교육의 사명이란 신념에 투철했다.

딸애는 부반장이다. 작년 연말 이웃 돕기 모금 때 딸애의 반은 이등을 해서 애석 상장을 타서 반에 걸어 놓을 수는 있었지만 신문사에 가서 모금한 걸 전달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영광만은 애석하게도 놓치고 말았다.

그때 아내와 딸애는 어서어서 여름이 와서 다시 수혜가 나서 **수재민 돕기**를 할 수 있기를 조급스럽게 **별렀었다**. 마침내 소원이 성취된 것이다.

(중략)

이 단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증권 회사 건물이다. 여러 증권 회사의 무릉 출장소가 한데 모여 있는 건물이니만큼 거대하다.

금속성인 광택을 지니고 하늘 높이 예리하게 솟아 있는 걸 그 꼭대기까지 쳐다볼라치면 아뻏하면서 현기증이 난다.

내가 그 앞에서 번번이 압도당하는 것은 그 높이 때문만은 아니다. 미구에 아내가 이 건물과도 인연을 맺을 것 같은 예감 때문이다. 저녁나절의 이 거리엔 산책을 나왔는지, 외식을 나왔는지 별 불일 없이 오락가락하는 가족들이 많이 눈에 띈다.

가족이라야 젊은 부부가 아이를 하나 아니면 둘 데리고 있다. 때로는 아이들끼리 아는 척을 하기도 한다. 어른처럼 새침하고 예의 바르게 아는 척을 한다.

나는 어느 누구와도 아는 척을 안 했지만 한 사람도 낯설진 않다. 비슷한 옷차림에 비슷한 표정들을 하고 있다. 특히 타협적이면서도 깔보는 듯한 표정 때문에 이웃끼리라기보다는 한 핏줄끼리 같은 혐오감 섞인 친근감조차 그들에게 느끼게 된다. **찰사는 사람다운 우월감**으로 함부로 남을 깔보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이중성이야말로 아내의 개성일 뿐 아니라 무릉동 주민 누구나의 특징이었던 것이다. 나는 별안간 **내 얼굴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급히 가까운 양식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실내는 침침하고 거울은 눈에 띄지 않았다.

양식집 속에도 젊은 부부와 한두 명의 아이들로 된 가족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나는 능숙하고도 권태롭게 칼질을 하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 아이나 남의 아이나 어딘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하나같이 어른을 고대로 축소해 놓은 것 같아 보여서였다. 엄마나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로 아이들은 하나같이 작은 어른이었다. 마치 성장을 억제해서 키운 **문제의 나무**하고 묘목하고 다른 것처럼.

옷 입은 것도 그렇고 하는 태도도 그렇고 작은 어른이지 조금도 아이들답질 않았다. 특히 아이들이다운 호기심이 없는, 타협적이면서도 깔보는 듯한 표정이 결정적으로 아이들을 아이들답게 만들고 있었다.

이 거리의 아이들이 아이들답지 않다는 발견이 새삼스러운 건지 케케묵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다. 아무튼 난 새삼스럽게 그 발견을 갖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 박완서, 「낙토(樂土)의 아이들」-

3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회상을 통해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②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긍정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이야기 내부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진술하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병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3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교장 선생님의 교육적 신념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 ② 아내는 딸이 학교를 대표해서 성금을 신문사에 전달하기를 원했다.
- ③ 아내가 건물과 관련될 것 같은 예감으로 인해 ‘나’는 건물에 압도당한다.
- ④ ‘나’는 무릉동 주민의 표정을 아내와 연관 지으며 무릉동 주민의 모습을 낮설지 않게 느낀다.
- ⑤ 딸을 학교 대표로 세우려는 교장 선생님의 노력으로 인해 딸의 반은 작년보다 모금 실적이 우수해졌다.

33. 문제의 나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장 선생님’이 추구하는 ‘완벽한 질서’와 모순되는 소재이다.
- ② ‘옷’을 되풀이해서 골라주는 행위로 드러나는 ‘아내’의 불안을 의미한다.
- ③ ‘젊은 부부’가 가진 특성을 지니지 않은 ‘양식집 속’ ‘아이들’을 의미한다.
- ④ ‘아이들답지 않’은 ‘이 거리의 아이들’의 ‘이중성’을 약화시키는 소재이다.
- ⑤ ‘금속성인 광택’으로 상징되는 ‘무릉동 주민’의 욕망이 초래한 결과를 의미한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낙토의 아이들」은 인간적 가치를 상실하고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무릉동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을 다룬다. 타인의 불행을 이용하려는 비인간적인 가치관과 과도한 경쟁심을 가지고, 부자연스럽고 획일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태를 보여 준다. 이런 세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지만 물질의 편안함이 주는 일상에 안주하여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인물의 모습도 보여 준다.

- ① ‘모금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묘안을 강구해’ 내는 것에서, 과도한 경쟁심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수재민 돕기’를 하려고 ‘별렀었’다는 것에서, 비인간적인 가치관을 지닌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내 얼굴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물질의 편안함이 주는 일상에 안주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잘사는 사람다운 우월감’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는 것에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불쾌감을 느끼고 ‘그런 유의 회의에 사로잡히’는 것에서, 부자연스럽고 획일적인 모습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겠군.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버지는 등에 찰싹 달라붙은 내 티셔츠를 들추고 통풍을 시켜주며, 짜아식 집에 가서 목욕하고 자야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내 손목을 잡고 팔장이 있는 데로 갔다. ㉠ 아버지와 같이라면 폴도 조금쯤은 덜 무서웠다. 아버지는 건장한 몸집과 솔뚜껑 같은 손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가 풀 가로 걷고 나는 안측으로 걸으면서도 겁이 나서 아버지에게 꼭 매달렸다.

별안간 내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버지에게 영겨붙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가볍게 털어냈다. 나는 물속으로 조약돌처럼 풍덩 빠지며 킬킬킬 하는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얼마 동안 물속에서 죽을 기를 쓰고 허우적댔는지 모른다. 가까스로 팔장 가의 손잡이를 붙잡고 보니, 어처구니없게도 목 위가 물 밖에 나왔는데도 발이 땅에 닿는 게 아닌가.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허리를 비틀고 킬킬대고 있었다. 마치 웃음이 사레가 들린 것처럼 격렬하고 괴롭게 아버지는 킬킬댔다.

㉡ 순간 나는 아버지가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 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나보다 죽은 누이동생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내가 살아남은 게 미워서 나도 누이동생처럼 물에 빠져 죽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 나는 내 추측에다 제법 논리적인 체계를 세웠다.

그것은 지독한 배신감이었다. 아버지뿐 아니라 폴도 나를 배신했다. 늘 헤아릴 길 없이 충충한 깊이로 나를 겁주던 풀이 내 한 길도 안 되는 깊이일 줄이야.

㉢ 배신당한 충격과 분노가 도리어 나에게 수영을 배울 용기가 되었다. 그해 여름 처음 나는 자진해서 동네 교회당에서 가는 하계 캠프에 참가해서 수영을 익혔다. 처음에는 아버지께 대한 복수심으로 이를 부득부득 갈며 물에 대한 공포감에 도전하다가 어느 틈에 물개처럼 자연스럽게 물과 친해졌다. 아버지께 대한 오해와 앙심도 저절로 풀렸다.

[중략 줄거리] 국민학교 이학년인 '나'는 황금빛 단추가 달린 검은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늠름함과 홀륭함을 느낀다. 그해 여름 아버지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를 데리고 출근하겠다고 선언한다.

아버지와 나는 버스를 탔다. 버스가 달릴수록 우리 동네보다 길도 넓어지고 집도 커지고 차와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우리 동네가 서울 시내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낯을 잃고 창밖을 내다보는 나한테 “정신이 없지? 여기가 시내란다” 하고 말을 걸었다. 내가 대답을 안 하자 “짜아식 촌놈이라 별수 없구나. 질려서 얼이 쏙 빠져버렸잖아” 하기도 했다.

[A] 무지무지하게 높은 집만 있는 동네에서 버스를 내렸다.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서 아버지를 잃으면 생전 못 찾을 것 같아서 나는 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붙들었다. 문득 아버지를 따라나온 게 후회스러워졌다. 몇 년 전 나를 뿌리쳐 풀 속에 뺨개쳤듯이 이 엄청난 인파 속에 아버지가 나를 뺨개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물속에선 헤엄이라는 거라도 칠 수 있지만 인파에 빠진 촌놈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던 말인가.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뿌리치지 않았을뿐더러 더욱 꼭 붙들어주었다.

칠층인가 팔층인가 되는 회색 빛깔의 집 앞에서 아버지는 멎었다.

“여기가 아빠 직장이란다.”

큰 집이었지만 그 근처엔 십층도 넘는 집이 수두룩해서 나는 가볍게 실망했다.

아버지와 내가 문 앞에 서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 ㉣ 나는 아버지를 위해 문을 열어준 시중꾼을 찾아내려고 두리번거렸으나 아무도 찾지를 못했다.

저절로 열리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있는 방으로 아버지가 들어섰다. 그 방은 드나드는 사람을 뺀히 살펴볼 수 있는 유리창이 달려 있고 딱딱한 비닐의자가 서너 개, 회색빛 호마이가 테이블과 전화가 있을 뿐인 좁고 살벌한 방이었다.

게 좀 앉았거라, 하면서 아버지는 모자를 벗고 이마의 땀을 닦았다. 나는 처음으로 이 여름에 아버지는 저 검은 양복으로 얼마나 더울까 하는 생각을 했다.

[B] 자동차 밖에 새까만 차가 멎더니 대머리가 까진 키가 작고 넥타이를 맨 쪼오다 티가 더러더러 나는 남자가 나타났다. 아버지는 걸걸을 해서 뛰어나갔다. 그러더니 쫓쫓이 서서 우리 삼형제가 매일 아침 아버지한테 하는 것 같은 ‘경렷’을 그 쪼오다한테 엄숙하게 올려붙이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그 쪼오다가 아버지를 거들떠봤는지 안 봤는지 그것을 살필 겨를도 없었다. 승용차는 연달아 자동차 밖에 와서 멎고, 아버지와는 너무도 판관인, 역수같이 퍼붓는 소나기 속을 물 한 방울 안 맞고 십 리도 가계 생긴 새앙쥐 같은 사내들이 그 속에서 내렸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경의를 과장한 ‘경렷’을 올려붙였다.

넥타이 맨 새앙쥐 같은 사내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고 점잖게 걸어 들어갔지만 실은 아버지의 존재를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 수가 있었다.

아버지의 당당한 거구와 비상식적인 화려한 웃은 실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넥타이 맨 새앙쥐들의 우월감과 권위 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릿광대의 의상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제야 아버지의 방 유리창에 ‘수위실’이라고 써 있는 걸 읽을 수가 있었다. 그나저나 아버지는 왜 나에게 자기의 어릿광대질을 보여주려고 했을까. 높은 분의 아침마중을 끝낸 아버지가 수위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별안간 킬킬댔다. 웃음이 사레가 들려 더 지독한 웃음이 되어, 아버지의 웃음은 좀체 멎지를 못했다. ㉤ 그것은 질자배기 깨지는 소리였으며, 동시에 나의 우상이 깨지는 소리였다.

나는 수위실을 뛰어나왔다. 내 앞을 가로막는 문이 다시 스스로 열렸다. 나는 어느 틈에 건물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붙들지 않았다. 아니 또 한번 뺨개쳤던 것이다. 나는 도시의 인파 속에서 몇 년 전 풀 속에서 허위적대듯 허위적댔다. 그리고 풀 속에서 듣던 것과 똑같은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었고, 풀 속에서처럼 고독했고 풀 속에서처럼 이를 갈며 아버지께 앙심을 먹었다.

내가 고등학생이 되자 아버지도 많이 늙었다. 나는 그 나이가 되도록 그런 어릿광대스러운 양복을 입고 수위 노릇을 해야 하는 아버지께 연민을 느낄지언정 앙심이 남아 있을 리 없었다.

— 박완서, 「배반의 여름」—

3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등장인물과 상황에 대한 반응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 ② 시대적 상황 묘사를 통하여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동일한 사건을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35.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기대 - 배반 - 성장’의 이야기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주인공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지 못한 소년으로, 아버지에 대해 기대와 믿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배반을 경험한다. 하지만 차츰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양심이 풀리면서 내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 ① ㉠에서 물을 무서워하는 ‘나’는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군.
- ② ㉡은 ‘나’가 ‘아버지’의 행동으로 기대와 믿음이 깨어지자 보인 반응이군.
- ③ ㉢에서 ‘아버지’에게 느낀 배반감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는군.
- ④ ㉣은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해 줄 실체를 찾으려는 기대에서 나온 행동이군.
- ⑤ ㉤은 ‘아버지’의 웃음소리의 의미를 알게 됨으로써 ‘나’의 내적 성장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군.

3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 [B] 모두 현재형 진술을 통해 긴박감을 조성한다.
- ② [A], [B] 모두 배경 묘사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한다.
- ③ [A]에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B]에는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
- ④ [A]는 새로운 공간이, [B]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인 인물의 심리 변화를 유발한다.
- ⑤ [A]에서는 직접적 제시를 통해, [B]에서는 간접적 제시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 16년 11월 고2 38~40번

[38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부친으로부터 꽤 기쁨이 잡힌 ㉠면직물 공장을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마지못해 사업가가 되었다. 뿐 새로 사업에 손을 대는 젊은이다운 의욕도 야망도 없었다. 나는 미리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자수성가한 부친은 진작부터 나에게 돈을 벌려면 아랫사람을 어떻게 부려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가르쳤었다. 그래서 나는 돈은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키는 기술에 대해 익히 알고는 있었으나, 그 일을 내가 직접 행해야 한다는데 당해서는 전전긍긍했다. 사업은 날로 부진해갔다.

직물계도 차차 틀이 잡혀 큰 자본이 투입되어 대기업화하고 더군다나 화학섬유의 대량생산으로 면직물계는 사양의 길을 걸을 때라 나는 쇠망의 흐름을 저항은커녕 열씨구 하며 탔던 것이다. 드디어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공장을 정리했다. 부친이 일

생 동안 모은 돈을 불과 일 년 만에 날리고도 나는 자책보다는 우선 돈을 조금 주고 일은 많이 시켜가며 사람 부리는 그 지겨운 일로부터 놓여났다는 해방감이 앞섰다. 그것은 부친으로부터 놓여났다는 해방감일 수도 있었다. 나는 공장을 정리한 얼마간의 돈으로 부친의 망령이라도 감히 간섭할 수 없을 것 같은, 될 수 있는 대로 생전의 부친과 생소한 사업에 이것저것 손을 대보았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전축 조립 공장, 석유난로 공장, 다시 또 규모를 좁혀 노트 공장, 단추 공장, 형광등 기구 공장 이렇게 잡다하게 업종을 바뀌가며 영락없이 적지 않은 손해만 보고 물러났다.

물러났다기보다는 마치 차멀미에 못 견디고 나머지 달리는 차에서 신선한 외기로 뛰어내리는 돌발사고처럼, 그렇게 갑자기 하던 일에 멀미를 내고 무작정 무위와 고독 속으로 뛰어내렸던 것이다.

사업을 하려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어려운 일은, 돈을 조금 주고 일은 많이 시키는 것 말고도 얼마든지 있었다. 세리와와 간교한 ‘쇼부’, 관료에의 아침, 수지맞는 일이라면 염치 불구하고 송사리의 분야까지 넘보는 대자본의 파렴치한 측수, 동업자간의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경쟁,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심한 멀미, 신선한 외기로 뛰어내리지 않고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느릿느릿한 멀미가 되어 나에게 작용했다.

[중략 줄거리] ‘나’는 집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산동네로 이사하고, 그 집이 있는 벼랑 밑의 삼층집에 살고 있는 김복록은 그 집에 이사 온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자릿세를 수년 간 받아 챙긴다. 김복록은 새로 이사 온 나를 호출해 터무니없는 자릿세를 또 요구한다.

“뭐? 누구 맘대로 안 사. 그럼 내 땅을 내놔야지. 남의 땅을 공거로 먹을 배짱이야. 날도둑놈 같으니라구.”

“말씀 삼가십시오. 누가 닥의 땅을 먹는됐습니까? 가져가세요. 아마 측대를 조금 내 쌓았다 이 말인가본데, 측대가 저렇게 기니까 열 평이라야 길게 열 평일 테니 한 뼘쯤 되겠군요.”

“뭐? 뭐라고, 누구 맘대로 하, 한 뼘이라고……”

“그야 우리 맘대로야 안 돼요. 가져가시더라도 측량을 하고 수속을 밟고 가져가셔야죠.”

“뭐 측량? 다, 당신이 측량을 하겠다고? 흥, 측량은 돈 안 드는 줄 알고.”

“왜 제가 합니까? 땅이 필요한 건 당신인데. 백만원이 생기는 것도 당신이고.”

“뭐? 내가 언제 뭐 필요했어? 뭐?”

“원, 이런 어른 봤나?”

아이들이 안 보인다. 아주 안 보인다.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다.

나는 일어나면서 김복록을 뚫어저러 응시한다. 별안간 아물아물하던 게 명료해진다. 바로 그다! 순간적으로 나는 김복록을, 오랜 세월 내가 하려는 일 뒤에 숨어서 나에게 그 고약한 멀미를 일으키게 한 정그러운 괴물의 정체로서 파악한다.

저런 모습이었구나. 바로 저런 모습이었어. 탐욕이니 비열이니 파렴치니 하는 추상명사가 뺄아 살을 갖추면 바로 저런 모습이 되는구나. 나는 진저리를 쳤다.

나는 ㉢그날부터 다시 장난감 만들기예 골몰할 수 있었다. 나는 멀미로써 나를 속박하던 괴물의 정체를 알아낸 것에 신선한 기쁨을 느꼈다. 또 그 괴물의 본질이 알고 보니 보잘것없이 허약하다는 게 내게 용기가 되기도 했다.

나는 아직 다시는 멀미를 앓겠다는 자신감지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함으로써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방법보다는, 그

와 맞서 그 본질을 알아냄으로써 **자유로워지려는** 방법에 접근하고 있는 스스로를 **자각**했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일이나마 기쁨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대견한 일이었다.

드디어 몇 가지 마음에 드는 장난감 모형이 완성돼 칠을 하려고 컴프레서를 돌렸다. 낡은 가내공업용 컴프레서는 몹시 덜덜거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끄지 못해. 내가 이 동네 다 샀어? 안 끄면 고발소에 썬들 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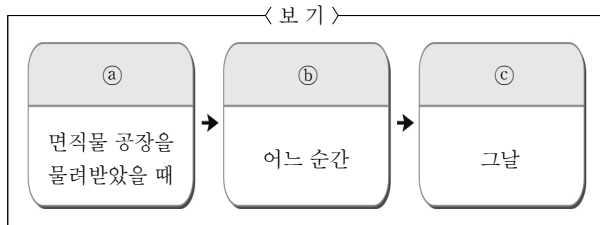
김복록네 복창이 열리더니 그 추한 얼굴을 길게 내밀고 고래고래 악을 썼다. 나는 다시 느글느글 멀미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계에서 나는 지독한 소음에 대해선 대책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김복록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웃에 대한 예절이었다.

- 박완서, 「어느 시시한 사내 이야기」 -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에 반전을 꾀하고 있다.
- ②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서술하여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담담한 태도로 서술하여 사건에 대해 중립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나'는 면직물 공장을 경영하는 일에 두려움이 있었다.
- ② a에서 '나'는 다른 사업보다 부친이 일군 사업에 관심을 가졌다.
- ③ b에서 '나'는 사업 과정에서 겪는 부조리한 일에 멀미를 느꼈다.
- ④ c에서 '나'는 '김복록'에게서 그동안 느낀 멀미의 실체를 보았다.
- ⑤ c에서 '나'는 예전에 골몰했던 일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소설은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진 1970년대를 배경으로, 물질 만능주의 풍조 속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속물적 세태에 적응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한 인물이 자신이 겪은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직물계'에 '큰 자본이 투입'되고 '대기업화'되었다는 것에서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군.
- ② '수지맞는 일이라면 염치 불구하고' 작은 분야까지 '넘보는 대자본'의 모습에서 물질 만능주의의 풍조를 느낄 수 있군.
- ③ '김복록'에게 '측량'을 하고 '수속'을 밟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이 속물적 세태에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나'가 '김복록'을 '징그러운 괴물', '탐욕', '비열', '파렴치' 등으로 파악한 데에서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엿볼 수 있군.
- ⑤ '멀미'를 피하지 않고 '그와 맞서' '자유로워지려는' 자신을 '자각'하는 모습에서 '나'가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너우네 아저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전쟁 때 자식 대신 성표를 데리고 피난했던 너우네 아저씨를 떠올린다.

밤새도록 반짝반짝 닦은 크고 작은 자물쇠를 앞뒤로 주렁주렁 달고 장군처럼 거만하고 당당하게 장사를 나가는 너우네 아저씨의 권위는 완벽했다. 내 자식을 사지에 뿌리치고 조카자식을 구해 내서 공부시킨다는 게 그렇게 위대한 일일까? 나는 그의 당당함에 압도된 채, 속으로 ‘언제고 그의 위대성이 터무니없는 가짜라는 걸 보고 말 테다’라는 엉큼한 생각을 키우고 있었다.

휴전이 되었지만 우린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다. 38 이남이었기 때문에 꼭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던 우리는 하필 우리 고향 쪽에서 남으로 처진 휴전선이 억울하고 원망스러웠다.

너우네 아저씨인들 그때 이별이 영이별 될 줄만 알았으면 설마 지계에 은표 대신 성표를 올려놓지는 않았으련만....., 형과 나는 고향을 아주 잃은 비감 때문에 이렇게 너우네 아저씨의 처사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려 들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너우네 아저씨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장조카를 구했노라고 으스댔다. 장조카를 공부시킬 위대한 사명을 띤 그의 행상이 조그만 점포로 발전할 무렵 우리도 생활이 좀 나아져서 딴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다. 그러나 자주 소식을 주고받았고, 만날 기회도 심심찮게 있었다.

1년에 두 번 있는 동향인의 군민회도 우리 식구가 모두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참석하는 즐거운 모임이었지만 너우네 아저씨네도 꼭 숙질이 함께 참석했다. 또 신허민끼리의 의리라는 것도 각별해서 고향 땅에선 서로 모르고 지냈던 사이끼리도 경조사를 서로 연락하고 적극 참석했다.

결혼식장 같은 데서 가끔 만나는 너우네 아저씨는 성표를 대동할 적도 있었고 혼자일 적도 있었다. 물론 앞뒤에 자물쇠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왕년의 행상 티는 조금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 눈에 언제나 그가 자물쇠를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제 자식을 모질게 뿌리치고 장조카를 데리고 나와 성공시키기 위해 온갖 고생 다 했다는 걸로 자신을 빛내려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자물쇠 행상일 적에 매일 밤 그것을 닦아 훈장처럼 빛냈듯이, 요새도 매일 밤 자신의 내력을 번쩍 번쩍 빛나게 닦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특이한 내력으로 어디서나 빛났다. 동향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나잇살이나 먹은 이들은 그의 자랑을 끝까지 들어 주고 아낌없이 그를 칭송하고 존경하는 걸로 자신의 도덕적인 결함까지 은폐하려 드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은표 어머니의 ㉠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잊지 못하는 한 그의 위대성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 그가 웃음거리가 되는 걸 보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단념할 수 없었다.

동향인의 결혼식도 잦았지만 장례식도 잦아졌다. 동향인이 모이는 자리에도 세대교체 현상이 나타나 나잇살이나 먹은 이들이 점점 줄었다. 너우네 아저씨의 자랑을 들어 주고 칭송할 사람도 그만큼 줄었다. 자신의 내력이 더 이상 자신을

빛내 줄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너우네 아저씨는 눈에 띄게 풀이 죽어 갔다. 나는 그런 허점을 놓칠세라 젊은 사람들한테 그가 한 짓을 풍겼다. 젊은이들의 반응은 노인들의 반응과 판이했다. 우린 이미 너우네 아저씨가 신봉하던 케케묵은 도덕과 상관없는 세대였다. 그건 한낱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게 웃음거리라면 너우네 아저씨는 더 큰 웃음거리였다. 좀 더 생각이 깊은 젊은이라면 너우네 아저씨가 자기 처자식에게 저지른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개해 마지않았고, 그를 슛제 징그러운 괴물 취급하려 들었다.

(중략)

“애구머니, 이제 죽을 날이 정말 가까웠나 봐. 꼭기 끊으면 죽는다는데.....”

아주머니가 경망스럽게 손갈을 내던지며 놀랐다. 그러나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확신을 얻고, 그의 경련 치는 손을 잡고 애타게 외쳤다.

“아저씨, 너우네 아저씨,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네, 너우네 아저씨, 뭐라고 말씀 좀 해 보세요.”

이윽고 아저씨의 손에 힘이 켜어지는 듯하더니 입술끝이 확실했다. 나는 그의 멍청하던 눈에 그윽한 환희가 어리는 걸 푹푹히 보았고 그의 ㉡ 일이 말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은표야, 아아, 은표야.”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아저씨가 그의 아들을 뿌리치고 대신 조카를 데리고 피난 내려온 뒤 한 번도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걸 들은 적이 없었다. 은표의 단짝이었던 나를 보면 은표도 어느 하늘 밑에 죽지 않고 살았으면 저만할 텐데 하고 비감하는 눈치라도 보일 법한데 그런 적조차 없었다. 그는 아들을 뿌리침과 동시에 아들의 이름까지 잊어버렸을 뿐더러 아예 기억에서 지우고 사는 사람 같았다. 아들 대신 장조카 데리고 피난 나왔다고 자랑할 때의 아들도 보통 명사로서의 아들이지 은표라는 고유 명사로서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가 처음으로 입에 올린 은표 소리는 나만 겨우 알아들을 만큼 희미했다. 그러나 내 귀엔 역장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렸다. 그는 사력을 다해 ㉢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아, 30여 년 전 은표 어머니의 역장이 무너지는 소리는 이제야 앙갚음을 완수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되길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려 왔을 터인데도 쾌감보다는 허망감에 소스라쳤다.

다시 열쇠고리 장수가 늘어선 거리로 나왔을 땐 해가 뉘엿뉘엿했다. 해가 뉘엿뉘엿할 무렵이면 가슴에 하나 가득 갖가지 자물쇠를 늘인 채 봉지쌀과 자반고등어를 사들고 뒤통뒤통 걸어오던 너우네 아저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봉지쌀과 자반고등어 때문인지 자물쇠가 훈장으로 보이는 엉뚱한 착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외롭고 초라한 자물쇠 장수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를 직시할 수 있기까지 자그마치 서른두 해가 걸렸던 것이다.

- 박완서, 「아저씨의 훈장」 -

3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인물의 행동과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시대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작중 인물인 서술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
- ④ 장면을 빈번하게 교차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의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34. [자물쇠]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너우네 아저씨'에 대한 '나'의 인식을 드러낸다.
- ② '나'와 '너우네 아저씨'의 심리 변화를 유발한다.
- ③ '나'와 '너우네 아저씨'의 삶의 성찰을 이끌어낸다.
- ④ '나'와 '너우네 아저씨'가 갈등하는 이유를 드러낸다.
- ⑤ '너우네 아저씨'에 대한 '나'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다.

3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로 인한 인물 간의 오해가 ㉢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 ② ㉠을 통한 인물에 대한 판단을 ㉣로 인해 보류하고 있다.
- ③ ㉠을 통해 ㉢를 공감하게 되면서 인물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 ④ ㉢를 통해 ㉠을 회상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 ⑤ ㉢를 ㉣로 인식하면서 상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아저씨의 훈장」은 가부장적 세계관과 사회적 평가에 사로잡혀 속박된 삶을 산 인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작품 속 인물은 자신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 믿음을 실천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자 한다. 하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 세대가 교체되면서 사회적 평가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아울러 작가는 인물들의 삶을 바탕으로 한국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문제까지 함께 조명하고 있다.

- ① '형'과 '나'가 고향을 잃은 비감을 느끼는 모습에서 한국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슬픔을 엿볼 수 있군.
- ② '너우네 아저씨'를 비웃는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기존 세대에서 인정받던 믿음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나'는 풀이 죽어가는 '너우네 아저씨'의 모습을 시대에 따라 달라진 사회적 평가를 지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군.
- ④ '너우네 아저씨'를 칭송하는 '노인들'의 모습에서 가부장적 세계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나'는 '너우네 아저씨'가 장조카를 통해 자신을 빛내려 하는 모습을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군.

◆ 20년 9월 고2 26~29번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시오.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훈이가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재벌이나 판검사나 그런 게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정직하게 벌 어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대기업에 붙여, 공일날 카메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사람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런데 그나마도 쉽게 되어 주지를 않았다. 취직 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니, 보러 가기도 보러 가라기도 점점 서로 미안하게 되었다. 이 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훈이가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제비로 돈을 좀 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해 왔다.

“뭐라고, 해외 취업? 그럼 외국에 나가 살겠단 말이지? 그 건 안 된다.”

“왜요 고모, 제제하게 돈이 아까워서? ㉠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 봐 겁나서?”

훈이는 두 개의 간략한 질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했다. 마치 이 두 가지 이유 외에 딱 이유란 있을 수도 없다는 말 투였다. 나는 뒀에 얻어맞은 듯이 아연했다.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살아 주었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놓은 고아인 저 녀석을, 온 정성을 다해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게 결코 내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담.

제가 잘되고 잘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한 ㉡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은 깊은 상처의 치유를 확인 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저 녀석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 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 그 녀석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시선이 강하게 부딪쳤으나 나는 단절감을 느꼈다. 문득 이 녀석 치다꺼리에 구역질 같은 걸 느꼈으나 가까스로 평정을 가장했다.

“해외 취업은 당분간 보류하렴. 할머니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건 네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다. 그리고 취직 문제데, 너무 고지식하게 정문만 뚫으려고 했던 것 같아. 방법을 좀 바꾸어서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봐야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흥, 돈 때문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녀석이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하며 대들었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곁에서 내가 늘그막에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훌쩍였다.

[중략 줄거리] 고숙도로 건설 현장 일꾼으로 채용된 훈이에게 ‘나’는 카메라 대신 작업복과 워커를 사 준다. 어느 날 ‘나’는 훈이를 찾아가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훈이를 보자 서울로 돌아가자고 설득한다.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를 뚝뚝히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에게 보여 주고 싶어.”

“그걸 우리에게 보여서 어찌겠다는 거야? 그걸로 우리에게 ㉣ 복수라도 하겠다 이 말이나?”

나는 훈이 말에 무서움증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흥분해서 악을 쓰며 덤벼들었다.

“고모 그렇게 흥분하지 말아. 나는 다만 고모가 꾸미고, 고모가 애써 된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놓여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만 고모, 오해는 마. 내가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 나는 내 나름으로 이곳에서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노라면 누가 알아, 일이 고모의 당초 계획대로 잘 풀릴지. 나도 어느 만큼은 그 쪽도 원하고 있어. 파국만을 원하고 있는 게 아냐.”

“그래 참, 잘될 수도 있을 거야. 잘될 여지는 아직도 충분히 있고말고.”

나는 불안간 잘될 가능성에 강한 집착을 느끼며 태도를 표변했다.

“㉤ 그렇지만 고모, 잘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진 마. 뒀돈 쓰고 빌붙고 하느라 돈 없애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 말란 말야. 여기 와 보니 육 개월만 기다리라는 임시직 신세로 삼사 년을 현장으로만 굴러다니는 친구가 수도룩해. 임시직 에겐 봉급 조금 주고, 일요일도 없이 부려 먹고, 책임은 없고, 얼마나 좋아, ㉥ 회사 측으로선 훌륭한 경영합리화지.”

훈이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배웅했다. 진부까지 나가는 완행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뭔가 훈이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이 나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나를 과장해서 들려주면서 고속도로가 뚫리면 서울서 강릉까지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편안해지겠느냐, 너는 이런 국토건설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걸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㉔ 녀석이 구역질 같은 소리로 “웃기네” 했다. 때마침 바캉스 시즌이라 자가용이 연이어 강릉으로, 월정사로 달리면서 우리에게 흙먼지를 뒤집어씌웠다. 훈이도 한몫 참여한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자가용과 관광버스가 그 위에서 쾌속을 즐기겠지. 훈이도 그 생각을 하면서 “웃기네” 했을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한 말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드디어 버스가 오고 나는 그것을 혼자서 탔다. 나는 훈이에게 몇 번이나 돌아가라고 손짓 했으나 훈이는 시골 버스가 떠나기까지의 그 지루한 동안을 위커에 뿌리라도 내린 듯이 꿈쩍 않고 서 있었다. 나는 **그게 보기 싫어 먼 똥 데를 바라보**았다. 논의 벼는 비단 폭처럼 선연하게 푸르고, 옥수수 밭은 비로드처럼 부드럽게 푸르고, 먼 오대산의 연봉의 기상은 웅장하고, 오대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도처에서 내와 개울을 이루고 있다. 아름다운 고장이다. 이 땅 어디메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느냐.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뿌리내리기 힘든 고장인가.

훈이가 젓먹이일 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화해 사람들의 삶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져지는 걸 본 나이기에, 지레 겁을 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 가며 키웠다.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연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

- 박완서, 「카메라와 위커」 -

2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재의 상징적인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상황에 대한 인물 간의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물의 내면과 대조되는 배경 묘사를 통해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인물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7.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부양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고모에 대한 훈이의 불만을 드러낸다.
- ② ㉒: 해외 취업을 반대하는 고모에 대한 훈이의 반감을 드러낸다.
- ③ ㉓: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훈이의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 ④ ㉔: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회사에 대한 훈이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 ⑤ ㉔: 국토건설사업에 이바지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에 대한 훈이의 비웃음을 드러낸다.

28. ㉔와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는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위이고, ㉔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위이다.
- ② ㉔에는 특정 인물의 오해가, ㉔에는 특정 인물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 ③ ㉔는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에서, ㉔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 ④ ㉔에는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㉔에는 특정 인물을 기만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었다.
- ⑤ ㉔는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㉔는 특정 인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연극적 자아는 속물적인 논리로 자신과 자기 주변만을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감춘 채, 세상과의 타협을 지향하는 이중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연극적 자아의 부정적 특성을 심화시킨다. 이로 인해 연극적 자아는 그 주변의 인물마저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간다.

- ①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은 연극적 자아의 내부에 존재하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유발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찾으려는 모습은 연극적 자아의 속물성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애써 된 이 일의 파국’을 통해 연극적 자아 주변에 있는 인물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④ ‘그게 보기 싫어 먼 똥 데를 바라보’는 것은 연극적 자아의 이중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군.
- ⑤ ‘이 땅에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에 대한 소망은 세상과의 타협을 지향하는 연극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소년 수남이는 전기 용품점에서 일을 한다. 수남이는 부지런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자신에게 친절한 주인 영감님을 잘 따른다. 어느 날 영감님의 심부름으로 거래처에 수금을 하던 중, 세워둔 자전거가 바람에 넘어져 신사의 자동차에 작은 흠집을 내게 되어 수남이는 곤경에 처한다.

누군가가 뒤에서 “빌어, 이놈아. 그제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어.” 하고 속삭인다. 수남이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동정하고 있다고 느끼자 적이 용기가 난다.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아저씨.”

제법 또렷한 소리로 용서를 빈다.

“용서라니,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어떻게 더 용서를 해.”

“아저씨, 그러시지 말고 한 번만 봐 주세요. 네, 아저씨.”

수남이는 주머니에 든 만 원 생각을 하면 얼굴이 화끈대고 공연히 무섭기까지 하다. 그렇지만 ㉠주인 영감님을 위해 그 돈만은 죽기를 무릅쓰고 지킬 각오를 단단히 한다.

“아니 윤석이 이제 보니 이런 큰일 저지르고 그냥 내뺄 심사 아냐? 요런 악질 녀석 같으니라고.”

신사의 표정은 은은히 감돌던 연민이 싹 가시고 점잖게 무표정해진다. 그리고는 옆에 섰던 운전사인 듯한 남자에게,

“안 되겠네. 요런 악질 깡패 녀석하고 시비해 봤댔자 공연히 시간만 낭비니, 자네 자물쇠 하나 마련해다 주게. 이 녀석 자전걸 잡아 놓기로 하세. 언제든지 오천 원 가져와서 찾아가라고.”

[A]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오백 원짜리를 한 장 꺼내서 운전사에게 주는 것이었다. 수남이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태였다. 주머니의 만 원에 대해서만 생각했었지 자전거에 대해선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다.

운전사는 금방 커다란 자물쇠를 하나 사 가지고 왔다. 신사는 다시 네놈은 쳐다보기도 싫다는 듯이 수남이를 전혀 상대 안 하고, 묵묵히 자전거 바퀴에다 자물쇠를 채우고, 앞에 빌딩을 가리키면서,

“나 저기 306호실에 있으니까 돈 오천 원 갖고 와. 그러면 열쇠 내 줄 테니.”

<중략>

이상한 용기가 솟았다. 수남이는 자전거를 마치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옆구리에 끼고 질풍같이 달렸다. 정말이지 조금도 안 무거웠다. ㉡타고 달릴 때보다 더 신나게 달렸다. 달리면서 마치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내뺄기는 듯한 쾌감까지 느꼈다.

주인 영감님은 자전거를 옆에 끼고 질풍처럼 달려온 놈을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 바람이 세터니만 필시 이 조그만 놈이 바람에 날아왔나, 설마 그럴 리야 없을 텐데 내 눈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눈치였다.

수남이는 너무 숨이 차서 이런 주인 영감님의 궁금증을 시원히 풀어 주지 못하고 한동안 헉헉대기만 한다.

“임마, 말을 해. 무슨 일이야? 네 놈 꼴이 영락없이 도둑놈 꼴이다, 임마.”

㉢도둑놈 꼴이라는 소리가 수남이의 가슴에 가시처럼 걸린다. 수남이는 겨우 숨을 가라앉히고 자초지종을 주인 영감님께 고해 바친다. 다 듣고 난 주인 영감님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릎을 치면서 통쾌해 한다.

“잘 했다, 잘 했어. 맨날 촌놈인 줄만 알았더니 제법인데, 제법이야.”

그리고는 가게에서 쓰는 드라이버와 렌치를 가지고 자전거 [B] 에 채운 자물쇠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옆드려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주인 영감님이 수남이의 눈에 흡사 도둑놈 두목 같아 보여 속으로 정이 떨어진다. 주인 영감님 얼굴이 누런 뚱뚱한 것조차 지금 깨달은 것 같아 속이 메스껍다.

마침내 자물쇠를 깨뜨렸나 보다. 영감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오르더니 자유롭게 된 자전거 바퀴를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 이 자전거로 골목을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아 들어와서는,

“네 놈 오늘 온 똥다.”

그리고는 수남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과 턱을 두들긴 손으로 귀여운 듯이 감쌌다. 영감님이 기분이 좋을 때면 수남이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으레 그렇게 했었고, 수남이도 그걸 좋아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싫다. 영감님의 손이 싫다. 그것이 온 트기는 커녕 재수 옴 붙었다는 생각이 여전하고, 수남이는 그 날 온종일 우울했다. 그러나 자기가 왜 그렇게 우울한지 그걸 차분히 생각할 새도 없는 바쁜 하루였다.

가게 문을 닫고 주인택에서 날라 온 저녁밥을 먹고 나면 비로소 수남이 혼자만의 시간이다. 꿀 같은 시간이었다. 책을 펴 놓고 영어 단어를 찾고, 수학 문제를 풀어 보고, 턱을 피고 소년답게 감미로운 공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㉔ 그러나 오늘 수남이는 그게 되지를 않았다. 책을 집어던졌다.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것이었을까? 옳을 것도 없지만 나쁜 짓은 또 뭐가. 자가용까지 있는 주제에 나 같은 아이에게 오천 원을 우려 내려고 그렇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 굶려 준 것이 뭐가 나쁜가? 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 때의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님까지 “네 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고 하였을까.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단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더라 말인가.

수남이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그 까닭 모를 쾌감을 회상한다. 마치 참았던 오줌을 내갈길 때처럼 무거운 억압이 갑자기 풀리면서 전신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그 상쾌한 해방감 — 한 번 맛보면 도저히 잊혀질 것 같지 않은 그 짙은 쾌감, 아아 도둑질하면서 나도 나는 죄책감보다는 쾌감을 더 짙게 느꼈던 것이다.

혹시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㉕ 순간 수남이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솟은 듯이 후닥닥 일어서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좁은 방안을 헤맸다.

— 박완서, 「자전거 도둑」 —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속 서술자가 다른 인물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② 장면마다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작품 밖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 직접 평가하고 있다.
- ④ 작품 밖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동과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42. ㉑ ~ 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돈을 지키려는 모습을 통해 영감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수남이의 마음을 알 수 있군.
- ② ㉒: 자전거를 들고 달리는 모습을 통해 해방감을 느끼는 수남이의 마음을 알 수 있군.
- ③ ㉓: ‘도둑놈 꼴’이라는 말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수남이의 마음을 알 수 있군.
- ④ ㉔: 책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통해 수남이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알 수 있군.
- ⑤ ㉕: 안절부절못하는 행동을 통해 신사에 대해 수남이가 분노하는 마음을 알 수 있군.

43. <보기>를 참고하여 [A]와 [B]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은 한 소년이 소년기에서 성인의 단계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아의 깨달음과 성숙을 다룬 성장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수남이’는 속물적인 어른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물질적 측면보다 양심이나 도덕성이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소년은 성숙해 간다.

- ① [A]에서 어쩔 줄 모르는 수남이의 모습은 수남이가 소년기 자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A]에서 자전거를 빼앗기는 사건은 수남이가 성장하게 되는 계기로 볼 수 있겠군.
- ③ [B]에서 영감님이 수남이를 칭찬하는 모습은 영감님이 도덕적인 어른들의 세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B]에서 수남이가 영감님의 얼굴빛을 이전과 다르게 인식하는 모습은 수남이가 성숙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A]에서 [B]의 사건을 겪는 수남이의 모습은 소년이 성인의 단계로 입문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군.

◆ 21년 9월 고1 20~23번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단 한 가지도 값나가는 게 없을까 놀라고 민망해 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비롯해서 가깝게 지내던 조카들은 그가 쓰던 걸 뭐든지 한 가지씩이라도 얻어 갖길 원했다. 다들 그렇게 아쉬운 처지가 아닌데도 그런다는 건 그 뜻이 소유나 쓸모에 있지 않고 아끼고 간직하려는 데 있으려니 싶어 나는 목이 메게 감격을 했다. 크게 성공하거나 성취한 건 없어도 생전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이 사랑받았다는 증거 같아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유품을 공평하게 나눴다. 그러나 모자는 다 내가 가졌다. 그건 누가 달라지지도 않았지만 달라고 해도 안 주었을 것이다.

마지막 일 년은 참으로 아까운 시절이었다. 죽을 날을 정해놓은 사람과의 나날의 아까움을 무엇에 비길까. 애를 끊는 듯한

애달픔이었다.

(중략)

그런 옛일에 얽힌 농담이라면 얼마든지 재미나게도 그윽하게 할 수 있었으련만 나는 고약한 성깔에 잔뜩 치받쳐 있었다. 여복해야 그가 딱하다는 뜻이 그러나 역시 농담으로 받았다.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꼭 틈바구니에 낀 쥐 같잖아.”

그리고 피식 웃더니 탄식하듯 덧붙였다.

“생전 ㉠ 틈바구니에 끼여 봤어야지.”

그의 목소리가 하도 연민에 차 있어서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죽어 가는 사람으로부터의 연민은 감동적이었다. **울어버릴 것 같았다.**

CT 촬영은 참으로 놀라운 첨단 과학이었다. 뇌를 가로세로 여러 장으로 슬라이스하듯이 나누어 찍은 단면 사진은 내 눈으로도 고루 퍼진 암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뇌는 혈관의 회로가 달라서 항암제가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방사선을 뇌에다 쬔다는 거였다. 방사선 치료란 죽는 연습이었다. 그 치료엔 아무도 입회하지 못했다. 방사선과 의사까지도 그를 치료대에 혼자 고정시켜 놓고 나와서 밖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조종했다. 그 안에서 그는 어떤 기분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방사선이란 어떻게 생긴 빛일까? 그 깊이 모를 외로움과, 너무 밝아 차라리 **암흑과 상통할 것 같은 빛에 대한 공포감**은 죽음에 대한 상상력과 너무도 유사했다. 그는 이마가 까맣게 타도록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해 본 CT 촬영에서 암은 소멸되지도 줄지도 않은 채였다. 미국 가 있는 막내를 잠시 귀국토록 했다. 돌아가신 후 장례에 맞춰 오려고 허둥대는 것보다는 생전에 뵈러 오는 게 효도가 아니겠느냐는 게 판 자식들의 의견이기도 했다. 아버지한테 뭐 사다 드리면 좋겠느냐고 막내가 전화로 물어 왔다. 약 종류를 묻는 말투였다. 그러나 그의 병세도 그렇지만, 때도 이미 미국엔 별의별 신효한 약, 불로초 같은 것까지도 있는 것처럼 여기던 촌스러운 시대가 아니었다. 나는 막내에게 모자를 사 오라고 말했다. 최고급으로 사 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과연 막내가 사 온 모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의 모자의 원형과 가장 가까웠다. 순모로 된 통짜 중절모였고 비단 리본이 달려 있었다. 그러나 테가 너무 넓어 신사 모자라기보다는 카우보이 모자를 연상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네 살짜리 손자 녀석이 그 모자를 보더니 “와아, 장고 모자다.” 하면서 그걸 빼앗고 싶어 했다. 녀석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 장고가 그런 모자를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자를 쓴 채 안 빼앗기려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다. 여전히 비틀대며, 손자가 울음을 터뜨려도 그는 그 모자를 내놓지 않았다. **손자와의 마지막 장난**이었다. 마지막 한 달가량 자리보전하고 있을 때를 빼고는 그는 집에서도 출창 그 모자를 쓰고 있었다. 막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도 그 모자를 아꼈겠지만, 넓은 테는 방사선 치료로 시꺼멓게 탄 이마를 가려 주는 데 안성맞춤이었다. 그 장고 모자가 그의 여덟 번째 모자이자 마지막 모자가 되었다.

나는 요세도 가끔 그가 남긴 여덟 개의 모자를 꺼내 본다. 그 안에서 **머리카락 한 오라기**라도 찾아보려고 더듬어 보지만 번번이 헛손질로 끝난다. 그 여러 개의 모자는 멋이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민머리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몸을 차디찬 땅속에 묻은 건 확실한데 아침마다 우수수 지던 그 술한 머리카락은 지금 어느 만큼 멀리 흩어져 티끌로 떠도는

결까. 생명의 가없음이 티끌과 다를 바 없다는 속절없는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그의 흔적을, 남긴 물질에서 찾는 것보다는 남긴 말이나 생각에서 찾는 게 그래도 조금은 덜 허전하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고, 잘난 척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답소는 즐겼지만 그럴듯한 말은 할 줄 몰랐다. 우리집엔 그 흔한 가훈도 없다. 그의 말이 생각나는 것도 그가 끼면 편안하고 여유로워지는 답소 분위기이지, 멋있거나 뜻 깊은 말뜻은 아니다.

오직 틈바구니만이 예외다. 내가 생전 틈바구니에 끼여 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이 나를 자꾸 심각하게 한다. 그가 나 대신 가 주던 동사무소나 세무서에 불일 보러 가서 똑똑지 못하게 굴다가 구박 맞으면 이게 틈바구니가 싶기도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칼자루 권 자와 칼날 권 자, 통일꾼과 반통일꾼이 서로 목청을 높여 싸우는 걸 봐도 전처럼 선뜻 어느 쪽이 옳거나 양자택일이 안 되고, 또 그놈의 틈바구니에 사로잡히게 된다. 여봐란듯이 틈바구니에 끼기 위해선 거친 두 목청 사이에 낀 틈바구니의 숨결을 찾아내야만 할 것 같다. 어쩌면 그는 그때 삶과 죽음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만큼은 내 원색적인 분노를 관조할 수도 있었기에 해 본 단순한 연민의 소리일 뿐인 것을 내가 괜히 심각하게 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여전히 틈바구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는다. 그가 남긴 모자가 나에게 모자라는 **물질 이상**이듯이 틈바구니란 말 또한 말뜻 이상의 것, 한없이 추구해야 할 화두임을 면할 수가 없다.

- 박완서,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을 풍자하고 있다.
- ② 독백적 진술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동일한 공간에서 사건이 반복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④ 장면이 빈번하게 교차되며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외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2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카들’은 아쉬운 처지가 아니었지만 ‘남편’의 유품을 얻기를 바랐다.
- ② ‘나’는 ‘남편’의 병세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 ③ ‘딴 자식들’은 ‘남편’의 생전에 ‘막내’를 귀국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④ ‘막내’는 ‘남편’을 위해 카우보이 모자가 연상되는 중절모를 사 왔다.
- ⑤ ‘남편’은 잘난 척할 줄 몰랐기 때문에 평소 멋있거나 그럴듯한 말을 하지 않았다.

22.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의 초점을 ‘남편’에서 ‘막내’로 전환하고 있다.
- ② ‘나’에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유발하고 있다.
- ③ ‘남편’의 죽음에 대한 ‘나’의 미안함을 보여주고 있다.
- ④ ‘막내’에게 ‘남편’의 죽음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⑤ ‘나’의 가족에게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죽음을 앞둔 남편의 모습을 관찰하고 남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나’의 시선을 통해 남편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모자를 간직하며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낸다. 또한 남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남편의 모자를 ‘물질 이상’의 것으로 여기며 모자를 모두 간직하는 ‘나’의 모습에서, 남편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남편이 농담으로 받은 말에 ‘울어버릴 것 같’다고 느끼는 ‘나’의 모습에서, 남편의 말에 ‘나’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다고 믿고 있는 ‘나’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방사선 치료를 받는 남편의 ‘빛에 대한 공포감’을 덜어 주려는 ‘나’의 모습에서, ‘암흑과 상통할 것 같은’ 죽음에 대해 느끼는 ‘나’의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힘겹지만 ‘손자와의 마지막 장난’을 하며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서, 가족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남편이 남긴 모자에서 ‘머리카락 한 오라기’라도 찾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나’의 애절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24년 10월 고1 38~41번

[38 ~ 4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니, 작은 것 한 장도 못 되는 돈 갖고 이 바닥에서 독채 전세를 얻겠다고?”

그러더니 다시 한바탕 해소라도 발작한 것같이 급하게 웃었다. 거금 구십만원을 작은 것 한 장도 안 된다니, 이 노인이 귀가 좀 어두운가 해서 나는 다시 목청을 돋우어 구십만원을 강조했다.

그래도 노인은 탁하고 급한 웃음을 멎을 척도 안 했다. 사무실 앞에 **승용차가 나란히 두 대가 멎더니** 부인들과 신사들이 섞인 한 떼가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곳도 결코 파리 날리는 한가한 곳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모님, 지금 보신 **그 땅** 눈 짝 감고 잡아놓으십시다. 글썽 문제없다니까요. 중도금 치르기 전에 평당 오천원 떠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니까요.”

젊은 신사들이 부인들을 피고 노인도 합세했다.

“우리하고 손잡고 이 바닥에서 큰돈 잡은 사모님네들 술합니다, 술해.”

나는 그들에게 완전히 잊혀졌다. 영아 기저귀를 갈아주고 다시 업고 나올 때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나는 다시 버스를 타고 이 아름다운 신흥 주택가에 양심을 품고 떠났다.

그 다음날은 수유리 쪽으로, 그 다음날은 망우리 쪽으로, 그 다음날은 갈현동 쪽으로 다녀왔지만 어디서고 구십만원짜리 독채 전세는 구경도 못 하고 다만 구십만원의 가치를 좀더 분명히 알아온 데 불과했다.

결국 우린 의논을 다시 해서 독채는 아니더라도 안집으로부터 뜯겨 떨어진 부엌도 따로 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어 독립된 오붓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전세방을 구하기로 합의했다. 어차피 전셋집도 못 되는 전세방을 구할 바에야 구태여 교통이 불편한 변두리로 갈 게 뭐냐고 도심에 가까운 주택가를 돌기 시작했다. 구십만원짜리 전세방을 구하던 소리에 복덕방 영감의 반응은 괜찮았다. 사뭇 급실대기까지 했다. 그 바람에 나도 좀 배짱을 부렸다. 방이 깨끗하고 널찍해야 된다는, 부엌에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그리고 남편이 하던 소리도 했다. 정원이 있는 양옥집이어야 하고 주인집에 전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나는 남편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 때 그 철딱서니 없음이 딱하고 한심해 대꾸도 안 했었는데 거드름을 부리고 싶은 나머지 ㉠그 소리까지 했다.

그런데 채수 나쁘게도 첫번째 본 집에서 등에 업힌 영아를 트집잡았다. 아무리 뜯겨 떨어진 방이지만 갓난애가 딸린 집은 싫다는 거였다. 주인여자는 외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런 소리를 하며 우리 영아를 냉랭하게 쏘아보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나는 그 여자의 시선에 못든 주술이라도 걸려 있어 우리 영아가 곧 어떻게 되는 것 같아 허둥지둥 그 집을 뛰쳐나왔다. 세상에, 겨우 생후 일 년밖에 안 된 천사 같은 것을 그런 독사 같은 눈으로 노려보다니, 정말 채수 움 붙은 날이었다.

애는 무조건 싫다니, 그럼 셋방살이 신세가 무슨 대역죄라고 단종주술이라도 하란 말인가.

그러나 그 다음에 본 집도, 또 그 다음에 본 집도 아이를 꺼리는 마관가지였다. 마당에 기저귀 널어놓는 것 보기 싫다는 등, 걸음마 타면 잔디를 망쳐놓 거라는 등, 꽃을 딸 거라는 등, 멋대로 트집들을 잡았다. 어떤 집값은 중년 부인은

“쫓쫓, 미련도 하지. 아이는 집 장만부터 하고 낳아야지 어찌 자고 아이부터 낳았수?”

㉢그 여자 말을 들으니 집 장만하기 전에 아기를 낳는다는 일이 사생아를 낳는 일보다 훨씬 더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다. 나는 수치심으로 온몸이 불화로처럼 달아올랐다.

[중략 줄거리] 복덕방 영감은 애를 데리고 다니면 집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하고, 남편은 친정에 영아를 맡기고 둘이서 집을 알아보자고 한다.

“잔디 밟지 마세요.” 주인여자가 맑고 차가운 목소리로 주의를 주고 먼저 현관으로 들어가더니 뒤란으로 난 셋방의 부엌문을 안에서 열어주었다. 부엌도 방도 넓고 정결하고 밝았다. 방의 벽지도 고급이었고 부엌의 상하수도 시설도 갖추어져 있었다. 여자가 다시 식구를 물었다. 남편이 **냉큼 두 내외뿐**이라고 하자 여자는, “젊은 두 내외 믿을 수 있나요. 언제 애가 생길지. 그렇지만 어린애가 생기면 방은 당장 옮기실 각오하셔야 돼요.”

하고 못을 박았다. 나는 가슴이 마구 두방망이질하는 걸 느꼈다. 영아도 영아였지만 나는 지금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있는 중이었다. 어머니의 해몽에 의하면 아들이 틀림없다는 용꿈까지 꾸 뒤였고, 나도 낳는 김에 아주 아들 하나 더 낳고 그만둘 셈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의 **배까지 흘끔흘끔** 보며 이런 **야박한 소리**를 거침없이 하는 것이었다. 나는 집에 대한 정나미까지 뜯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도 남편은 이 집을 얻기를 고집했고, 언제나 그렇듯이 일은 남편 고집대로 되고 말았다.

“영아는 이사 가는 날 내가 당당히 안고 들어갈 테니 당신은 조금도 걱정 말라구. 제년이 어쩔 거야, 내 새끼 내가 끼고 들어 가는데.”

이렇게 ㉣큰소리를 탕탕 치고는 정작 이사 가는 날은 탄소리를 했다.

“여보, 장모님 기력도 예전 같으시잖은데 이삿짐 거들어주십시오도 뵈하니, 여보, 집에서 편히 영아나 좀 봐주십시오 합시다.”

이삿짐을 대충 정리하고 밤에 영아를 데리러 나서려는데 남편은 또 ㉤탄소리를 했다.

“여보, 이 다음 공일까지만 영아를 외할머니한테 두어둡시다. 이 기회에 아주 젖을 떼게. 돌이 넘도록 젖을 빨린다는 건 무식하고 야만적이야. 더군다나 임신 초기에 젖을 그대로 빨린다는 건 애에게도 해롭고 모체에게도 해롭고 태아에게도 해롭고 그야말로 백해무익이라는 거야.”

고대하던 다음 일요일, 나는 일찍부터 **친정 나들이**를 서둘렀다. 남편도 순순히 따라나섰다. 집을 비우려면 뒤란으로 난 부엌문을 안에서 잠그고 주인집 마루를 지나 현관으로 나가야 한다. 주인여자가 괜히 썰쭉하며 동부인해서 정답게 어디를 가느냐고 했다.

“네, 이 사람 외식도 좀 시키고 쇼핑도 좀 하려고요.”

“어머머, 재미가 깨가 쏟아지셔.”

“그럼요, 아이 없을 때 실컷 재미 봐야지 언제 볼니까.”

오늘은 꼭 영아를 데려오려고 말쑥하던 남편의 수작이 이랬다. 나는 가슴이 막히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일주일 동안에 영아는 많이 여윌었다.

목이 상큼하고 눈은 더 크고 슬쩍 보였다. 어머니도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다. 울케의 기색도 안 좋았다.

— 박완서, 「서글픈 순방(巡房)」—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여러 인물의 내적 독백을 나열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여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 ㉢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를 삽입하여 이야기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사건을 진술하며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 ㉤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하여 그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39.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은 ‘나’의 태도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
- ㉡ ㉡은 ‘나’의 상황에 ‘주인여자’가 공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은 ‘나’가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며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 ㉣ ㉣은 ‘나’의 걱정과 관련해 ‘남편’이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언급한다.
- ㉤ ㉤은 ‘나’의 바람과 ‘남편’의 생각이 다름을 보여 준다.

40. <보기>에 따라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이 작품에는 ‘구십만원’을 둘러싼 인물들의 다양한 행동이 드러나 있습니다. 행동의 이유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봅시다.

- ① ‘복덕방 영감’이 ‘나’에게 급실거리는 이유는 ‘복덕방 영감’이 ‘구십만원’의 가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 ② ‘나’가 ‘남편’과 의논하여 구하는 집의 조건을 변경한 이유는 ‘구십만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 ③ ‘노인’이 웃음을 터뜨린 이유는 ‘구십만원’의 가치에 대한 ‘나’의 인식을 이용하여 이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 ④ ‘나’가 ‘노인’에게 ‘목청을 돋우어’ ‘구십만원’을 강조한 이유는 ‘구십만원’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 ⑤ ‘나’가 ‘신흥 주택가’를 떠나 사흘 동안 세 지역을 다닌 이유는 ‘복덕방 영감’으로부터 ‘구십만원’의 가치라면 전세방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에서는 주거 공간이 정착의 수단이자 물질주의적 욕망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부동산으로 부(富)를 축적하던 1970년대의 세대 속에서 가족의 터전을 찾는 인물들은 경제적 여유를 지닌 이들에 의해 삶의 방식을 간섭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격차를 실감하며 현실의 부당함을 인식하게 되는 인물들은 부에 가치를 두는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현실 대응 방식을 보여 준다.

- ① ‘승용차가 나란히 두 대가 뗏’은 후 거기서 내린 젊은 신사들이 ‘그 땅’에 대해 말하는 부분에서, 부동산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인식하던 세대를 짐작할 수 있군.
- ② ‘나’가 ‘첫번째 본 집’을 나와서 ‘셋방살이 신세가 무슨 대역죄’냐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주거 공간을 얻는 과정에서 마주한 현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주인공자가 ‘배까지 흘끔흘끔’ 보면서 하는 말을 ‘나’가 ‘야박한 소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경제적 여유를 지닌 이들에 의해 삶의 방식을 간섭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남편이 ‘셋방’의 상태와 시설을 보고 주인공자의 말에 ‘냉큼 두 내외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상의 물질적 조건을 고려하여 살 곳을 선택하는 현실 대응 방식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나’가 ‘친정 나들이’를 갈 때 주인공자에게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절망감을 느끼는’ 부분에서, 경제적 격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가족의 정착만을 중시했던 태도를 후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